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25일 화요일 음 2월 2일 (9월)

기상정보

호리고 비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60%
60%	성산	60%
60%	고산	60%
60%	서귀포	60%

해돋이 07:08	달돋이 08:11
해질 18:26	달질 19:52
만조 12:00	간조 05:57
23:57	18:29

주간예보

〈문의 064-750-131〉

내일	호리고 비	10/13℃
모레	구름 많음	6/13℃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월드뉴스

“코로나19 통제 벗어나는 변곡점 가까워져”

통제 가능 시간 얼마 안남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상태가 ‘변곡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영국 보건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볼 때 코로나19를 통제가능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코로나19 연구의 권위자인 폴 헌터 이스트앵글리아대학 교수는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터 교수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억제를 위한 기회와 창이 점점 닫히고 있다”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인 유행병을 막기 위한 능력이 다한 뒤 다가올 변곡점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미경으로 관찰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는 한국의 급증 사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말한 뒤 “이탈리아의 확진 사례는 유럽의 큰 걱정거리로, 며칠 내 상당수의 사례가 추가 확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최근 들어 중국 밖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리드하르 교수는 “WHO와 회원국 정부는 기존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에서 줄이는 것으로, 즉 부정적 영향을 감소하는 쪽으로 이행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운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한라칼럼

고 찬 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위원·문학박사

타성에 젖은 세상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하던 필자는 최근에 인문사회학자들의 연구 자율성 회복 운동에 동참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대학의 기업식 경영과 교육부의 획일적 정책 아래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성과주의식 논문 쓰기를 강요받아 왔었다. 연구의 주제에게서 연구할 자유를 뺏은 이 심각한 사안에 적극 나섰어야 할 연구자들은 정작 취업난 속에서 각자도생하느라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수수방관 태도로 문제를 더 키워 버렸다. 이제

때론 순진무구한 용기가 필요하다

는 구세주라도 등장하지 않는 한 해결하기 힘든 거대한 문제로만 여겨져, 절체절명 위기인데도 어느 누구도 선불리 나서지를 못한다.

그런데 뜻밖에도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변화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근래 알게 되었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지식인 문화를 스스로 만들자는 이 연대의 진심 어린 취지에 이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과외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 주도의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할 책무는 연구자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 떠나 할 것 없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다.

그렇다고 항상 신바람이 분 것만은 아니었다. 여러 일 중 연구 지원이나 평가 관련 기관들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는데, 건의하기 전부터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으로 위축된 적이 꽤 많았다. 아직 이

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규모도 작은 연대가 연구자를 대표하며 나서는 게 무모해 보이고 도리어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과 염려가 우리를 때론 주춤거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고백한대로, 소위 저항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정작 막강한 권력을 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기어 나오는 패배의식이 먼저인가보다. 하지만 나이와 경험이 제법 쌓인 우리는 이 비굴함을 그 자체로 인정하기 어려워한다.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의 관성을 삶의 이치인 양 받아들이며 그런 본인은 식견이 넓고 노련하되, 변화를 외치는 이들의 열망과 노력을 사회초년생이나 할 법한 실수로 치부해버린다.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싸움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다며 자신의 비굴함을 유려하게 정당화해 버리기도 한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능사라 여기

고 “가장 완벽한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되뇌면서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같다.

강한 소신과 사명감으로 똘똘 연구자 연대도 그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먼저 극복해야만 했다. 쉽지 않았지만 우직하게 그 과정을 겪다 보니 이제는 기관들이 조금씩 우리 목소리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냉소를 보내거나 무관심했던 다른 연구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운동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고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패기만큼은 다음 세대들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 성공가능성 여부를 떠나 서슴지 않고 필요한 때 용기를 내는 이들이 늘어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사회가 모두를 쉽게 길들일 엄두만 큼은 내지 못할 것이다.

열린마당

미세플라스틱 줄여 환경 살리자

강 명 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미세플라스틱’이 새로운 환경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을 말한다. 크기가 매우 작아 하수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와 강으로 유입된다. 이를 물고기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 결과, 자연산 굴, 담치, 무늬말게, 지렁이 같이 해양생물 4종의 내장, 배설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은 성장이 느려지거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발암물질에 노출돼 정자 수가 줄어들거나 질병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가 미세플라스틱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대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대신해 옥수수, 사탕수수, 대나무 같은 바이오매스를 주원료로 하는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안이다. 식물 섬유질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와 게, 새우 껍질 등에서 추출할 수 있는 키틴질 성분을 이용해 투명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필름(BPF)’은 일반 비닐 소재의 포장용 랩 대신 쓸 수 있다고 한다.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인 마이크로비즈를 2021년부터 화장품, 세정제, 연마제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주올레에서는 ‘ECO&LIFE, 세상을 바꾸는 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부득이 1회용 컵을 써야할 경우 친환경종이컵(세바우컵)을 사용한 후, 회수해 100% 재활용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장바구니를 휴대하고, 보온병의 사용을 생활화 한다면 자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감귤박을 이용한 새로운 ‘감귤종이’ 개발

김 형 준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총무과

1차 산업인 경우 FTA·기후변화·농촌고령화 등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지주 산업인 감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매년 감귤원에는 비상품 감귤을 따서 땅 위에 그대로 방치해 썩은 물질이 서서히 땅 속으로 침투해 오염시키기도 한다. 또한 기온이 높아지는 4월 말쯤 초파리 집단 발생으로 인한 살충제 살포로 다른 곤충류를 비롯한 좋은 미생물들이 죽게 된다. 따라서 그대로 버려지는 감귤박에 대해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 2005년 제주도의 어느

개인연구소에서 감귤박을 가지고 감귤 한지와 종이를 만들었는데 다른 종류의 전통한지보다도 항균성이 무려 98% 이상 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밝혔다. 또한 섬유를 만들어 감귤한지 패션쇼를 개최하는 등 한지문화의 우수성 홍보에도 한몫을 한 바가 있다.

최근 한지를 이용해 의료용, 기계 부품용, 섬유의류용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과거 제주도에도 종이나무인 닥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 붙여진 지명으로 한경면 저지리와 남원읍 신례리 북서지역인 닥낭벵다가 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서도 닥나무 단지를 조성하는 등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고 감귤가공 처리 후 남은 감귤박과 닥나무를 이용해 감귤 한지와 포장지를 생산한다면 부가가치 창출로 일자리 확충과 농가소득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종이생산업체·감귤생산자단체·감귤농가·행정기관 상호간에 실질적인 논의와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실적인 실행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히로시마7호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 수리향

4년생

* 유라실생

1,2,3년생

* 레드향 (무독)

1년생, 2,3년생

* 천혜향 (무독)

2,3년생

* 궁천

9년생, 1,2,5년생

* 궁천 변이지

1,2년생

* 하례조생

1,2년생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한라봉

5,6년생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